

## 1. 돈의 3 법칙

돈에는 잘 지켜야 하는 세가지 법칙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첫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입을 말합니다.

두번째 돈을 버는 이유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 소비라고 말합니다.

세번째는 번 돈에서 쓰고 남긴 돈을 말하는데 즉 저축하는 돈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빌론의 부자들은 돈을 벌어서 쓰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겨놓고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 둔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제 2 의 이익을 위해 재 투자 한다고 합니다. 좀더 현명한 방식으로 돈의 3 법칙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2. 스스로 하는 재무설계



요즘 재무설계라는 말이 흔해지긴 했어도 막상 재무설계라고 하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자산관리에 있어서 적정 배분률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Earning 벌기, 소득, 수입 Sharing 분할, 나누기)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순서는 쓰기 전에 이전 우리도 바빌론의 부자들처럼 돈 불리기부터 해보는 겁니다.

‘돈 불리기’의 의미는 Saving. 절약 . 즉, 아껴서 저축하고, Investment.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돈 쓰기’는 역시 말 그대로 Spending. 지출, 소비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돈 빌리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Borrowing. 은행에서 받는 대출,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빌리는 단기 자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차용금액에 대한 부분이 수입대비 과다하게 지출로 자리해서는 안됩니다. 이 4가지가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재무설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3. 지출조절

큰품목	세부품목		금 액	
의식	큰 품 목	세 부 품 목	금 액	
			현금	신용카드
	의식	식료품/외식/간식 의류/신발/세탁/수선		
주거	주거	주택설비및수선비 가구/가정용기기 침구/가사서비스		
광열·수도 기타세금	광열/세금	전기료/연료비 상·하수도/기타세금		
교통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1,교통비 2		
통신비	통신비	통신기기/서비스 가족 1,가족 2,가족 3		
보건·의료	보건·의료	병원비/약제비 의약품/의료용품		
교육비 자녀별/과목 별	교육비 (자녀별/ 과목별)			
교양·문화	교양/문화	서적및인쇄물 오락/문화생활 교양용품등		
기타지출	기타지출	미용/유형비/ 축하/조의금		
잡비	잡비	모임회비/그 외..		

이 기록지는 제가 쓴 머니트레이닝이라는 책의 전표 북입니다. 이걸 나중에 품목별로 합산 하기 좋으라고 미리 틀을 만들어 놓은 것뿐.

꼭 여기에 기록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에 상관없이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수증이 있든 없든 사용내역과 금액을 품목별로 나눠 주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썼는데 영수증 안 받은 것만 메모해서 영수증이랑 함께 모아 두었다가 품목별로 합산하면 되거든요.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 지출 우선 순위표

부부급여 합산 800 만원인 가족의 경우  
 $800 \text{ 만원} * 40\% = 320 \text{ 만원}$  소비

순위	항목	금액	누계
1	의식주	1,700,000	1,700,000
2	교통비	1,100,000	2,800,000
3	통신비	700,000	3,500,000
4	교육비	1,040,000	4,540,000
5	보험	800,000	5,340,000
6	대출이자	550,000	5,890,000

지출 중에서도 품목 별로 우선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00 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아까 설명 했던 재무설계 배분에서 40% 정도가 적정소비 비율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정의 경우는 적정 소비 비율을 초과 했다고 봐야겠죠.

이 지출 우선 순위표는 실제로 모 학교 워킹맘 선생님이 머니 트레이닝 중에 작성 한 자료예요. 모든 분들이 처음엔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다고. 그런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스스로 어디서 줄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꼭 해야 하는 지출의 순서대로 나열하기

순위	큰 품목	세부순위	세부품목	금액	비고 (절약액)
3	...				900,000
4	교육비	1	철수와외비	400,000	
		2	영수 학원비	140,000	
		3	지희 학원비	140,000	
		4	철수 영어학원	200,000	
		5	영수 바둑학원	80,000	
		6	지희 피아노 학원	80,000	
		합계	교육비합계	1,040,000	

그 선생님께서는 조절항목을 품목 중에 교육비를 선택해서 조절 하시더군요.

그 선생님은 철수와 영수, 지희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계시는데 세 자녀의 과외비, 학원비는 학습을 위해 꼭 보내야 하는 부분이니 필수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선 순위 1,2,3 번에 적혀지게 된 거고 4 번 철수의 영어 학원은 철수가 영어 경시대회에서 늘 1 등을 할 정도로 영어에 소질이 있어서 조기 유학까지 계획 하고 있을 정도니까 영어학원은 안 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수 바둑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 봤더니 그냥 원래 다니던 거라. 지희 피아노 학원은 오래 전부터 다니기 싫어하는데 끊기가 그래서 결국 영수 바둑과 지희 피아노 학원은 이렇게 차근차근 지출 우선 순위표를 작성 해 보고 나서야 그 동안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거라고 느껴지고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된거랍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나열하다 보면 불필요한 항목을 한 두 개씩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수입에 대한 정비와 예산세우기

[월 소비 가능 액 : 320 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고정수입	고정수입	700 만원
변동수입	추가수입	100 만원
합계	한달 동안 운영 가능한 수입	800 만원

그리고 나서 수입에 대한 정비도 한번 해볼 법 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총수입은 얼마인지, 보너스는 정기적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건지, 한달동안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얼마만큼인지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지난달 지출액을 참고해서 다음 달 예산도 세워 볼 수 있겠습니다.

순 위	품목	예상금액	누계
1	의,식,주	1,500,000	
2	교통비	500,000	2,000,000
3	통신비	400,000	2,400,000
4	교육비	880,000	3,280,000
5	보험료	800,000	4,080,000
6	용돈	500,000	4,580,000
7	대출이 자	550,000	
합 계			5,130,000

## 통장나누기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여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거나 매월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급여 일이 되면 미리 지출 별로 입금 해 놓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축할 금액도 미리 저축 통장으로 옮겨 놓고 그 금액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갑 안에 천원짜리 열 장을 넣고 쓸 때와 아홉 장 넣고 쓸 때와의 차이점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요?